

# 주인공 박해진 20일째 불참...촬영 올스톱

8~9부 남은 상황서 주연 교체 곤란  
하차한 나나 재촬영분도 완료 못해  
드라마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 커

사건제작을 표방한 드라마 '사자'가 제작 도중 '공중분해'될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연 박해진이 11월1일부터 20일 가까이 촬영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박해진 측과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1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박해진은 10월31일 '사자' 촬영에 입한 뒤 다음날부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극중 1인 4역을 맡은 것을 포함해 주인공으로서 비중을 고려할 때 그의 부재는 제작 전반에 적지 않



드라마 '사자'의 주인공인 연기자 박해진. 제작사와 맺은 출연 계약일이 10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는 11월1일부터 촬영에 불참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주인공의 부재로 인해 '사자'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스포츠동아DB

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빅토리콘텐츠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남자주인공(박해진) 측과 다소 문제로 인해 이날 초부터 연락 두절된 상태"라며 "장기화된다면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전체 분량의 약 50%

가량을 완성했다"고 밝혔지만, 남은 50%를 주인공인 박해진 없이 어떻게 진행할지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제작사 측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박해진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사자'의 제작사와 출연자, 제작진 사이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월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는 연출자 장태유 PD와 제작사 사이의 갈등으로 5월 한 차례 촬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홍 PD로 연출자가 교체됐고, 여주인공 나나와 김창완 등이 하차했다. 제작사는 약 석 달간의 진통 끝에 8월31일 촬영을 재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주인공으로 이시이를 캐스팅했다. 그리고 "10월 말 모든 촬영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제작사의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다. 여주인공 교체로 새로운 드라마 한 편을 찍는 것처럼 처음부터 진행해야 했지만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일정

대로 촬영현장에 연기자들이 모여도 촬영이 취소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이 중단되기 전인 5월 촬영을 완료했던 1~4부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 16부작인 드라마는 이제 절반 정도 찍은 상태이지만, 앞서 제작사가 약속한 촬영 시한은 이미 지났다.

박해진도 8월 말 촬영을 재개하면서 참여 기한을 10월31일까지로 제작사와 협의했다. 그러나 촬영 일정이 늦어지면서 양측이 합의한 시한이 지났고, 박해진 측은 "계약대로 이행"해 11월1일부터 촬영에서 빠졌다.

'사자'의 제작사와 출연자, 제작진의 끊임없는 갈등은 결국 시청자의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방송사 편성 여부도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혼선을 겪어온 분위기 속에서 드라마가 공개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해시태그 킷



같은 포즈, 다른 스웨그

방송인 강호동(오른쪽)과 빅뱅 승리의 '같은 포즈, 다른 느낌'이다. 강호동과 승리는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승리의 제스처는 아이돌가수답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 강호동의 이마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인다. 익살스러운 표정은 팬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팬들은 "강호동 무릎 위에 승리가 앉아있다"며 두 사람의 '괴한' 친분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강호동 #승리 #연인처럼 #무릎위에안아

##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 새 앨범 발표 앞둔 아이돌 안무연습 영상 왜 찍을까?

아이돌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연습실 안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이제 필수코스가 됐다. 메이크업, 의상, 조명, 세트 등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볼 만하지만 말 그대로 연습실에서 '날 것' 그대로 담은 안무 동영상은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안겨준다.

각 아이돌 가수의 이름과 함께 'practice room Ver.'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회수도 정식 뮤직비디오만큼 높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복 등 평상시 편하게 입는 옷차림으로 춤을 추는 스타들의 모습은 친근감을 더욱 자아낸다.

뮤직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기획회의를 거쳐 철저한 전략 아래 진행된다. 촬영도 오랜 시간 연습 과정을 거친 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직전에 진행된다.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촬영하는 것이다.

의상에도 남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멤버들이 평소 연습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해도 그룹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신곡의 분위기가 잘 묻어나는 것으로 골라 입는다. 특별한 날에는 만화나 영화 주인공 의상인 '코스튬'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이들이 단순한 연습실 안무 영상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일종의 팬 서비스. 나아가 더 많은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팬덤은 물론 볼수록 다수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등 제한된 무대를 넘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어필할 수도 있다. 백슬미 기자

## '마담 부모 과거사' 논란

### "아들로서 연대책임 있다" "부모의 사기사건이잖아"

#### 경찰 수사 재개...마담 "죄송하다"



마이크로닷

래퍼 겸 방송인 마이크로닷(신재호·25)이 부모의 과거 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로닷을 향해 부모의 잘못과 관련한 연대책임을 물어 싸잡아 비난하는 일부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닷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부모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몇몇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경찰에 신고된 피해 사실 확인 서류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을 맞았다.

결국 마이크로닷은 21일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모님과 이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발표로 두 번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그는 "아들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님께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들겠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충북 제천경찰서 측은 21일 수사를 재개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로 출국한 다음 달인 1999년 7월 기소중지된 상태다. 제천경찰서 측은 "마이크로닷의 사과문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자진 귀국을 종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현장.jpg

### tvN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송혜교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의 주인공 송혜교(오른쪽)와 박보검이 21일 서울 노원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송혜교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여자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드라마다.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 이후 출연작을 심사숙고해오던 이번 드라마를 택했다. 박보검 역시 드라마 출연은 '구미호 그린 달빛' 이후 2년만이다. 김진원 기자 kwangshin00@donga.com

## 솔지 합류 EXID...2년 만에 완전체 컴백

### 새 앨범 '아이 러브 유' 공개

#### "가장 EXID다운 매력!"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 여성그룹 EXID(LE·정화·하니·솔지·혜린)의 '만인' 솔지가 2년 만에 팀에 합류하면서 그룹 본연의 색깔과 매력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21일 발표한 새 앨범 '아이 러브 유'를 통해 솔지의 공백과 부족했던 팀 분위기를 한번에 채웠다. 앞서 솔지는 2016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 건강회복에 힘써왔다. 최근 완치판정을 받은 그가 이번 앨범을 통해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려지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앨범 발표 쇼케이스를 열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완벽해졌다"고 기뻐했다. 솔지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내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ID의 이번 활동은 '완전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메인보컬을 담당할 솔지의 합류로 음악적으로 더 풍성해졌고, 다섯 멤버들



"드디어 완전체!" 여성그룹 EXID가 21일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열린 새 앨범 '아이 러브 유'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각기 다른 포즈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멤버 솔지(왼쪽에서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완치 판정을 받고 2년 만에 팀에 합류했다. 김진원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 무대에서 뽐어내는 매력도 다채로워졌다. 특히 기존 EXID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색시함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카리스마를 더해 한층 능숙해진 분위기가. 또 그동안 마음이 변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슬픈 가사를 담은 노래를 주로 했다던 데뷔 후 처음으로 "아이 러브 유"라는 밝은 노랫말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가장 EXID다운 음악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한 만큼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만큼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국내에서는 각종 음악순위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다음 달 8일부터는 일본 투어도 예정되어 있다. 8월 일본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이들은 다른 걸그룹에 비해 데뷔는 늦었지만 걸크러시 매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정연 기자